

“검은 연기에 숨막혀”… 대피 주민들 ‘불안한 밤’

광주여대 체육관…108세대·203명
“잠 편히 못 자고 불편한 점 많아”
귀가 후 집안 곳곳 검은 분진 걱정
광산구, 주민 피해보상 대책 마련

“검은 연기가 계속 나와서 두렵고 목도 답답해서 목만 찡기고 나왔죠”

18일 오후 찾은 광주 광산구 광주여자대학교 체육관. 하룻밤 사이 대피한 주민 140여명은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듯 텐트 안에서 뒤적이고 있었다. 일부 주민들은 체육관 중앙에 설치된 TV 뉴스를 보면서 걱정이 가득 담긴 한숨을 내쉬었다.

피난은 주민들은 텐트 주변에 모여 둘러앉아 “하룻 밤 사이에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불이 언제쯤 꺼지려나”, “집이 걱정된다”며 하소연했다.

광산구청 직원들과 자율방재단 봉사자들은 도시락과 생수, 구호물품을 옮기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지난 17일 오전 광주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주변 지역까지 매캐한 냄새와 검은 연기로 뒤덮였다. 주민들은 불길에 잡히지 않고 재난 문자가 계속해서 전송되자 불안한 마음에 집을



광주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18일 오후 광주 광산구 광주여자대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대피소 텐트 앞에서 불을 피해 대피한 시민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싸서 대피소로 향했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인근 서라아파트에 거주하는 임모순(80)씨는 “검은 연기가 끓기지 않고 계속 나와 집에 혼자 있기에 불안해서 대피했다. 외판 곳이라 잠도 편히 못 자고 불편한 점들이 많다. 하루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대피소에 설치된 의료지원반에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50여명이 찾아왔다. 병원으로 이송된 주민은 없었지만 주민 대부분 고령층인 만큼 이후 몸 건강과 이동이 불편하다는 점이 걱정거리였다.

남편과 함께 대피한 한상숙(70)씨는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가 너무 무섭고 목도 답답한 것 같아 대피했다”며 “집에 비해 화장실도 너무 멀고 식사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불편할 것 같다. 빨리 불이 꺼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집으로 돌아간다해도 또 다른 고민거리가 이들을 걱정해 휩싸이게 했다. 바로 집안 곳곳과 외부에 쌓인 검은 분진이다

주민 이규열(84)씨는 “어제 검은 연기가 너무 많이 올라와 아직도 눈 앞에 선하고 고무 탄내가 여전히 코끝에 맴돈다. 집에 돌아가도 실내와 베란다, 창문 등에 쌓인 검은 재 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벌써부터 걱정이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대피소 누적 입소자는 108세대, 203명이다. 광산구는 체육관에 텐트 129개를 설치하고 주민 희망 시 자율적으로 입·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 오전 7시 11분께 광주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2공장면적 부지 23만㎡ 중 50% 이상인 14만 952㎡가 소실됐다. 18일 오후 2시 50분 기준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31시간 40여분 만에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의 초진에 성공함에 따라 대응단계를 1단계로 하향했다.

광산구 등 관계당국은 대피소를 오는 19일 오전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연기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인근 주민들을 위해 피해보상과 대책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글·사진=이정준 기자

‘국내 생산량 40%’… 공급 차질 장기화 ‘불가피’

하루 3만3천본…최대 생산 거점
매출 타격 우려…“생산량 등 조정”
GGM “곡성서 공급…재고도 보유”
경제계 “정부 피해 최소화 지원을”

국내 타이어 생산량의 40%를 담당하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이 화재로 가동이 중단되면서 공급 차질로 인한 매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은 하루 약 3만3000본을 생산하는 등 국내 타이어 생산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최대 생산 거점이다. 지난해에는 1200만본의 타이어를 생산하며 국내외 전체 생산량의 20%를 담당해 왔다.

금호타이어는 국내 3곳(광주·곡성·평택), 해외 5곳(중국 남경·천진·장춘, 미국, 베트남) 등 총 8곳의 타이어 생산 공장을 갖추고 있다. 이중 광주공장은 베트남 공장과 곡성공장에 이어 생산량 3위를 담당해 왔다.

소방당국은 화재 이틀째인 이날 오후 주불을 잡았으며 이날 오후 기준 진화율을 95%로 예측했다. 그러나 발화 시작 지점인 2공장이 60% 이상 전소하며 공급 차질이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타이어 생산 공정은 대략 6개 공정으로 나뉘는데, 이번에 불에 탄 2공장 시설 중에는 타이어 주 원료인 고무를 배합하는 시설이 포함돼 있는데다 콘베이어 벨트 방식으로 진행되는 생산 주요 공정이 멈춰서면서 전면 생산 중단이 불가피해졌다.

곡성 등 국내 공장에 생산 물량을 이전하거나, 필요시 해외 공장까지 활용할 가능성도 있지만, 국내외 공장 평균 가동률이 100%를 기록하고 있어 물량 이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액 4조5381억원, 영업이익 590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액 12.3%, 영업이익 43.7% 증가하는 호실적을 보였다. 이에 올해 ‘매출액 5조원’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화재로 인한 광주공장 가동 중단으로 경영 목표 달성이 불투명해졌다.

특히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임직원 2200여명, 식당과 경비 등 150여 명의 공장내 지원 인력에 협력업체 인력까지 포함하면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아차 광주공장도 삼성전자 광주공장 등과 함께 지역 내 ‘빅3’ 기업인 금호타이어 공장 화재는 지역 경제에도 큰 악영향이 우려된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이번 화재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복구에 상당 시간이 걸리면서 지역경제에 타격이 우려된다”며 “금호타이어와 지역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지역사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아직 화재가 완전히 진화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에는 이르나, 목표 매출액과 생산량 조정은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완전 이후 기아, 폭스바겐 등 완성차 업체와 협상을 통해 납품량을 조절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글로벌모터스(GGM)는 이날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로 GGM 완성차 생산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GGM은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에서 타이어를 공급받고 있고, 현재 금호타이어 15인치 2000본, 17인치 2000본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GGM의 전기차 EV는 금호타이어 50%, 넥센타이어 50%를 장착하고 있다.

GGM 관계자는 “곡성공장이 정상 생산 중이라 완성차 생산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시민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정일택 대표 직접 사과
“조속한 진화·피해 복구 총력”

금호타이어가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와 관련해 공식 사과 입장을 내고 피해 복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는 18일 오전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를 본 시민들과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며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 대표는 “소방당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화재진압을 최우선으로 하고 피해복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모든 임직원이 전면 협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가 18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사과문을 낭독하고 있다.

조 중이며, 조기 수습을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장 인근 거주 주민들이 대피한 상황에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7일 오전 7시 11분경 발생

한 화재는 공장 내부 타이어 원자재와 부자재 등이 불에 타면서 대형 연기와 분진을 유발, 인근 지역 일부 주민들이 광주여자대학교 체육관 등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로 이동한 상태다.

글·사진=이정준 기자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화재 의료상담 창구 운영

병원 연계 등 건강 피해 최소화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사고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상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광산구는 이날 오후 광주여대 체육관 임시거주시설, 광산구청 1층 송정보건지소 교육장, 하남3지구 광산구 보건소 등 3곳에 ‘금호타이어 화재 사고 의료상담 창구’를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광산구는 창구를 통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로 인해 신체 이상 증상이나 심리적 불안을 겪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병원 연계, 심리안정·치유 상담 등을 제공한다.

광산구는 박병규 광산구청장의 주민 안전을 위한 선제적 조치 지시에 따라 전날 오후 6시부터 광주여자대학교 체육관에



대피를 희망하는 주민을 위한 임시거주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심각한 화재 매연, 연기로 불편을 겪어 임시거주시설로 대피한 주민은 108세대 203명이다.

광산구 공직자들은 피해 현장과 인접한 아파트 단지를 돌며, 대피 수요를 파악하고 안내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는 한편, 각 아파트 통장, 입주자대표회의 등 대표 기구를 설득해 원활한 주민 대피를

이끌었다.

광산구는 광주여대 임시거주시설에도 의료지원반을 운영하며, 주기적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임시거주시설에서 두통, 호흡 곤란 등 신체 이상을 호소한 이재민은 53명으로, 37명(이재민, 현장 종사자 포함)이 심리안정·스트레스 치료를 받았다.

광산구는 지난 17일 화재 발생 직후 인근 아파트 단지, 광주송정역을 중심으로 방진마스크 2만 3000여 개를 배부한 데 이어 18일 오전 주민들 요청에 따라 사고 현장과 가까운 10개 아파트 단지, 광주송정역 인근 상가에 1만 개 마스크를 추가로 지원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주민 건강, 재산에 대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광산구 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겠다”며 “시민의 평온한 일상 회복에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철 기자